

섹슈얼 트라우마 : 근친상간과 성적강제



근친상간(Incest)의 정의와 현황

- 부부를 제외한 친족 간의 성관계로, 현대에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
- 혈연에 의한 관계만 근친상간으로 보는 문화권도 있고, 우리나라와 같이 입양이나 재혼에 따른 관계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음
- 재혼으로 인한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상간은 가정붕괴로 이어지는 드물지 않은 범죄로 보며, 특히,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근친상간은 아동학대로 규정됨
- 전 세계 여자 아동의 25%, 남자 아동의 10% 가량이 성인기 이전에 성폭력이나 성 충격 등 성적 외상을 경험하는데, 특히, 친족에 의한 성적 강제는 동의하지 않는(속임이나 협박) 경우가 대부분이며, 미국의 경우 연간 50만 건의 성폭력 범죄 중 5%내외가 근친상간이고, 우리나라의 경우 매일 하루 에 2건씩 발생함(여성가족부, 2021년)

근친상간의 후유증

- 자신의 성기를 다른 아이들에게 보이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며, 물건을 사용해 자위행위를 하거나, 성교를 흉내 내거나, 질이나 항문에 물건을 집어넣기도 함
- 성적으로 학대 받은 아이들 중 일부는 다른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
- 야뇨증, 유분증, 항문과 질의 소양감(가려움), 식욕상실, 두통 등을 호소
- 성폭력 상황을 연상시키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기도 하고,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억을 상실
- 성인이 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도 불안하고 위축
- 다중인격장애 환자의 상당수는 어려서 근친간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계부 혹은 친부로부터 근친간을 당한 딸이 성인이 돼서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보고됨
- 피해 당시 무력하고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통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인증 등을 경험

근친상간(Incest)과 금기(Taboo)

- 호감 및 대인매력의 기본 요인은 친숙성, 유사성, 근접성(Berscheid & Walster, 1978)
- 가족 구성원은 (성적인) 끌림의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원형적인 대상
- (그럼에도 불구하고) 근친상간에 대한 역겨움과 혐오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
- 근친상간에 대한 회피기제가 문화적인 제약 이전에 진화적인 부합으로 형성

근친상간회피의 토대 : 유성생식

- 섹스를 통해 전달되는 유전자는 총 유전자의 절반
- 섹스과정에는 전문화된 내적 기관이 동원되어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요
- 섹스과정에서 번식을 위해 설득체제를 사용하는 심리적인 노력
- 병원체가 숙주로부터 자원을 빼앗고, 면역체계를 붕괴시키면 종의 생존에 불리(특히, 숙주의 복제기간이 길고, 병원체가 짧으면 치명적)
- 유성생식은 종의 진화(Crow, 1965), 유전체의 보수와 수정(Bernstein et al., 1985), 자손에게 변이성을 두어 새로운 환경에 이주하고 적응(Williams, 1975)하게 하며, 병원체의 적응을 저지하고 복제를 방지하는 효과(Tooby, 1982)

근친상간회피의 토대 : 선택확률

- 동일한 유전자의 두 대안적 형태가 대립유전자
- 모계와 부계혈통에서 대립유전자가 동일하면 동형접합, 다르면 이형접합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형이 발휘되면 우성이고,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
-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대부분의 생식이 이형접합이기 때문(Burnham, 1975)
- DNA복제과정에서 오류(열, 화학, 환경 등)가 발생하여 염기변화가 생겨 대립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는데, 이것이 열성유전자에 전달되면(1/백만) 확률이 적어 큰 문제가 안되나, 우성에 생기면(1/1000 확률) 해로운 돌연변이가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확률의 해로운 표현형으로 고착됨

근친상간회피의 토대 : 근교약세

- 근친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열성 유전자가 양쪽 모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음
- 형제와 자매 또는 부모와 자녀의 대립유전자 공동보유는 .50
- 유전적 연관성이 없으면 $.25 \times 1/1000 = 1/4000$ 이지만, 근친에 의한 자녀가 출생 시 $.50 \times .25 = .125 (1/8)$ 이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의 취약성이 500배 증가함
- 동형접합으로 인해 유해한 열성유전자가 표현형으로 작동하여 근교약세(inbreeding depression)를 일으킴
- 선천적 기형(Bittles, 1991), 인지장애(Bashi, 1977), 높은 사망률(Seemanova, 1971)
- 사촌(.125)의 근교약세 일치율은 2-6%, 형제자매(.50)는 45%의 일치율(Aoki & Feldman, 1997)

근친상간회피의 토대 : 기회비용

- 전혀 번식하지 않는 것보다는 근친상간이 번식가치(이익)가 더 크겠지만, 근친상간을 위해 비 친족과의 짝짓기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가 더 클 경우 굳이 근친상간을 할 필요가 없음(Dawkins, 1983)
- 암컷(여자)는 임신(9-10개월)과 수유기간(2-3년)으로 인해 출산에 더 투자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여성이 더 높음
- 근친상간은 투자도 많고, 열성 유전자의 복제 위험도도 크다는 점에서 여성이 (특히 배란기에) 더 혐오하도록 진화함(Tooby & Cosmides, 2003)
- 짝 가치가 높고, 잠재적 짝이 많은 수컷은 근친상간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전략인 반면, 미혼, 섹스경험이 없거나, 짝 가치가 낮으면 근친상간의 잠재적 이득이 높을 수 있음(Antfolk, 2014)

근친상간회피의 심리학적 해석

- 프로이트는 인간이 근친상간에 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,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터부 때문에 초자아에 의해 억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, 조셉 세퍼는 6세까지가 성역할 정체감과 성적 선호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결론
- 아서 울프는 타이완의 민며느리 제도를 연구하여 30개월 이전에 남녀가 같은 집에서 양육되면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두지 않음을 발견(이 제도를 통해 결혼한 부부는 일반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세 배나 높았으며, 아내의 외도도 두 배 이상 높았고, 자녀의 수도 일반 부부의 평균보다 40% 정도 적었음)
- 인류학자 말리놉스키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 간의 성적 결합은 서열과 자원 분배의 혼란, 달라지는 애정의 우선 순위 등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금지되었다는 '가족분열 이론'을 제시
- 사회학자 웨스터마크는 아동기에 함께 자란 남녀 사이에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(이스라엘의 키부츠 연구)- [웨스터마크 효과](#)

근친상간회피와 친족지향 이타주의

- 냄새로 근친을 회피하는 **MHC(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)**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(Santila, 2012), 이는 특히 사춘기 여자(또는 배란기에)가 근친의 접근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도록 작동함
- 근친상간의 남자 행위자들은 향수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, 흡연자가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여자의 HMC유전자 작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(Wedekind & Furi, 1997)
- 원시시대부터 어머니가 동생을 양육하는 것을 보거나 형제끼리 공동 거주하는 것은 혈연임을 확인하는 식별단서였음
- 따라서 근친상간 회피와 더불어, 내편과 가족을 감지하여 우호적으로 행동하려는 친족지향 이타주의는 병행하여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 (Tooby & Cosmides, 2003)
- 근친상간을 회피하여 진화적인 위험부담을 줄이고, 혈연단서를 지각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유도하고, 내편임을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이타 행동은 적응에 유리한 기제였음

근친상간에 대한 적응과 부산물 가설

- 원시시대에서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자녀가 출산해도 양육의 책임을 공동의 몫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에 band의 입장에서 포괄적 적합도가 증가할 수 있었음(적응가설)
- 인류학자들은 난혼에서 족내혼 그리고 족외혼으로 발전하면서 band(무리)에서 tribe(부족)로 발전했다고 가정하는데, 부족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집단 선택에 이어 개인 선택의 압력이 강해졌을 것이라고 추론함
- 따라서 초기에는 대단히 적응적이었던 근친상간이 개인과 자신의 씨족(clan)의 관점에서는 돌연변이가 생성되고, 병원체가 전달되며, 비 혈연 짝을 찾을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회피하고 혐오하는 행동특성으로 인식됨(Tooby, 1977)
- 제3자에 근친상간에 대한 혐오 반응은 자신의 근친상간 회피 기제가 활성화되어 나타난 부산물(by product)(Lieberman, 2007)
- 적응(근친상간)이 부작용으로 인해 부적응이 되고, (근친상간)회피가 적응이 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도 발생함

근친상간과 오작동

- 인간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편이 누구인가 결정하고, 추후 행동을 이에 맞추어 이행하는 것이 적응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음(Descioli, 2013)(“**누가 적이고, 누가 동지인가**”)
- 인간은 비용과 효용성으로 타인에 대한 지지 정도를 결정(Tooby & Cosmides, 2010)
- 혈연 단서는 가장 효용성 있는 인식 기준이지만 항상 그 단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(약물 남용 등으로 혐오 체계의 작동 능력이 감소되고, 가족 시스템이 붕괴되어 혈연관계라는 유대감이 극적으로 저하되면서 적과 동지의 분별 기능이 상실되어 근친상간 회피 기제가 사라진 된 오작동의 결과
- 가출한 아내와 닮은 딸은 근친 상간한 아버지의 사례, 기러기 아빠가 되어 유학간 딸을 부양했으나 딸의 적응 실패와 귀국 그리고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된 이후 딸을 근친 상간한 아버지의 경우
- 가족 해체(또는 잠재적 위험)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씨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대상(남)으로 인식하고, 타인 같다는 판단때문에 근교 약세의 위험을 지각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발생한 오작동

성적 강제(강간)의 정의

- 강간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체 부위에 삽입(penetration)을 유발하는 행위를 통해 사람의 신체를 침범(invasion)하는 것으로 규정함
- 피해자의 항문이나 성기이외에도 신체의 어느 부분에 물건이나 다른 신체의 일부를 삽입하는 것도 강간이 될 수 있고, 최근에는 강간 개념이 '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로 삽입하는 것' 으로부터 개념(협의의 개념)에서, '**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력**' 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
- 진화심리학에서는 **번식을 고려한 성적인 강제의 관점에서 좁은 의미**의 강간에 국한하여 사용함
-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강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(70명), 뉴질랜드(30명), 영국(29명), 미국(28명)의 순임. 한국은 11명, 일본은 1명
- 미국의 경우, 강간이 신고된 비율은 실제 발생의 40% 미만

성적 강제

- 상대방의 충분한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 행동이 수반된 행위들(극단적인 형태가 강간)
- 부모투자이론(Trivers, 1972)에 따르면, 남자는 더 쉽게 짝짓기하려는 동기가 더 높으므로 이 과정에서 여성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강압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(Buss & Schmitt, 1993)
- 실제로 강간자의 99%가 남자임(Greenfeld, 1997)
- 남자는 강압(협박과 신체적인 완력)이나 속임을 사용하고, 여자는 고집을 피우고, 억지를 부려 성적인 강제를 이행한다(Hines & Saudino, 2003)

다른 종들의 성적 강제

- 수컷이 암컷을 대상으로 교미를 강요
- 암컷이 공격적으로 반항하는 경우는 있어도 암컷이 강제적으로 수컷과 교미하는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음(Lalumiere, 2005)
- 생식력이 없는(늙은)암컷이 아닌 생식력이 높은 (어린) 암컷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
- 구애 과정이 먼저 있고 이후 여의치 않을 경우 성적 강제가 시행되는 패턴(데이트 강간의 시사)
- 오랑우탄은 큰 수컷(80kg 이상)보다 작은 수컷이 더 빈번하게 성적 강제를 시도함(Knott, 2009)(짝 가치가 낮을 때 강간을 사용한다는 시사)
- 침팬지는 첫 교미 상대를 선택하려는 암컷에게 수컷이 더 공격적으로 성적 강제함(Muller, 2001)(성적 강제가 암컷의 짝 선호를 제약한다는 시사)

인간의 성적 강제

- 성적 강제의 비용이 낮거나, 가해자가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(전쟁 같은)에서 자주 발생
-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남성의 1/3이 강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 (Malamuth, 1989)
- 남자 대학생의 54%가 강제 섹스의 판타지를 생각한 적이 있음(Crepault & Conture, 1980)
- 성적인 상상은 성적인 행동의 주요한 선행조건이자 예측 인자(Knight et al., 2003)
-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행동을 정신질환이라는 대체 전략을 통해 환타지로 충족하듯이, 현실에서 성취불가능한 이성(거절되거나 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)에 대해 대체 전략으로 강간을 채택(Mealoy, 1995)
-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적응과 탐나는 물건을 갖기 위해 강압을 동원하는 적응이 결합한 부산물 (Symons, 1979)이거나 성적욕망+ 소유욕+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부산물(Ellis, 1989)

강간의 적응가설

- 특정 상황에서는 성적 강제가 번식에 효과적이었음
- 가임기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할 확률은 합의된 성관계에서의 임신 비율보다 2배가 더 높음 (Gottschall, 2003)
- 피해여성이 배란기 일 때 강간당할 확률이 더 높음(Beirne, 2011)
- 강간범(rapist)은 배란기의 여성을 식별해내는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(Mealoy, 1995)
- 피해여성이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음(Koss, 1988)
- 성적 강제 이후 미래의 성교 가능성이 증가함- 강간범은 자발적인 구애남성보다 더 많은 짝짓기 기회가 있음(Wilson & Dureeberger, 1982)- **외상유도의존성**의 결과(충격을 받아서)이거나 임신했을 경우에 자원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됨

강간의 적응조건- Thornhill & Palmer, 2000)

- 예비 강간범에게 유리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
- 생식력 단서를 식별(연령과 배란 상태)
- 강간 시 생산되는 정자 수 조절([정자전쟁가설](#))
- 다른 남성과 경쟁하는 번식경쟁조건에서 더 빈번
- 여성에게 접근 기회가 거의 없을 때([짜박탈가설](#))
- 강간 기회에 특수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기제

강간자 유형- 불리한 처지의 강간자

- 성교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강간을 하도록 동기화되는 남자로서 **불리한 처지의 수컷**(disadvantaged male) 또는 **짝 박탈 가설**(mate deprivation hypothesis)(Lalumière, Chalmers, Quinsey, & Seto, 1996)
-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자가 강간율이 유의하게 높음(Kalichman et al., 1998)
- Kril등(2006)은 강간 기결수의 얼굴 대칭률이 낮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유전자의 질이 낮음을 시사, 얼굴 대칭률은 신체적, 정신적 건강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(linked positively) 있으며(Shackelford & Larsen, 1997), 얼굴 대칭률이 낮은 남자는 덜 매력적이며 짝으로서 덜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됨(Gangestad & Thornhill, 1999)
- 번식 기회가 암울할 때 일부 남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위험을 더 감수하도록 동기화되어서 성적 주장성(sexual assertiveness)을 발동하고 강간으로 이어짐

강간자 유형- 전문화된 강간자

- 전문화된 강간자는 강간 중에 더 빨리 흥분하고 사정하도록 동기화하는 심리가 있음(Thornhill & Palmer, 2000)
- 강간 대상의 성적 매력과 임신 가능성(배란기 특징 등)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기제가 있음(Thornhill & Palmer, 2000)
- Thornhill과 Palmer(2000)는 일부 강간자들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자 수가 많은 사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
- 강간자가 성교에 성공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사정하는 것 역시 적응적임(부상 당하거나 보복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)(Gallup & Burch, 2004)
- 일회 성교 당 임신률이 강간의 경우에 동의 하의 경우보다 두 배 높고, 여자의 나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한(control) 후에도 동의한 성교보다 강간의 경우 임신률이 유의하게 높았음(Gottschall & Gottschall, 2003)

강간자 유형- 기회주의적 강간자

- 기회주의적 강간자는 쉽게 응하는(receptive) 여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만약 여자가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, 피해자의 가족 또는 사회에 의한 부상이나 보복과 같은 관련된 비용이 특히 낮을 때 를 포착하여 강간함
- 전쟁 시에 강간이 통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취약한 정도와 적 발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증거(Gottschall, 2004)
- 기회주의적 강간자는 피해자의 어른 남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가능성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임(Figueredo et al., 2001; Kanin, 1957)

강간자 유형- 짝짓기만 생각하는 강간자

- 짝짓기만 생각하는 강간자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강간자와 같은 다른 유형들과는 대조적으로 성적 경험이 더 많음(Lalumière & Quinsey, 1996)
- 공격적이고, 지배적인 성향이 이런 강간자의 특징인데 특히, 정신병질적인 특징이 뚜렷함(Lalumière, Harris, Quinsey, & Rice, 2005)
- 정신병질적인 남자들은 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며 많은 짝들을 추구하며, 비강제적인 전술들이 실패할 때에는 상습적이고 교묘하게 성적 강제를 채택함(Lalumière, Harris, & Rice, 2001)
- 섹스 자체에 환장한 사람들이고, 생존보다는 번식 전략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음

폭력반응성 성적 흥분(sexual arousal to force; SAF)

- 물리력을 사용해서 여성을 통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성적 흥분
- 성적 강제는 싸이코패스의 근본적인 특성(Quinsey, 2007)
- 성관계 의사가 없는 여성을 성공적으로 지배하고 싶고, 그 가능성을 느끼는 조건일 때, 특별하게 성적인 흥분이 개시되고 번식을 의도한 성적 강제에 돌입
- 여성에게 짝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을 느낀 직후 폭력 반응성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음
- 적대감이 높고, 공격적이며, 성 차별주의 성향이 높고, 권력지향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남성(드물지만 여성)이 성적 흥분을 매개로 성적 강제 반응을 일으킴(Bargh, 1995)

성적 반응성 합류모델

-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은 이성 특히 여성에게 무관심하게 대접받고, 경멸당하거나, 부정적 반응을 경험했을 때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기제가 발동하여, 더 강한 에너지가 축적 시키고, 성적 강제의 기회를 민감하게 살피다가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분노형, 지배형 강간을 설명(Leibold & McConnell, 2004)
- 강간 시 평상시 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 강도와 악력 그리고 순발력을 드러냄 (Harris, 2007)

강간 위험에 대한 여성의 역 적응

- 강간은 여성의 짝 선택 권리를 박탈당하고,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으며, 파트너와의 결별할 수도 있고, 자식 돌보기가 중단될 가능성도 커짐(Symons, 1979; Thornhill & Palmer, 2000)
- **보디가드설**은 자신을 지킬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반 강간 적응(Wilson & Mesnick, 1997)으로 특정한 남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갖거나, 강력한 여성-여성 결속을 시도하거나, 친척의 자원을 동원함
- 배란기에 행동 범위나 장소 그리고 만나는 남자를 더 선별하고 더 조심하는데 특히, 유력하고 짝 가치로 염두에 둔 남자에게는 더 노출이 심하고, 섹시한 옷 차림을 하지만 위험하고 낯선 곳은 적극적으로 회피함(Broder & Hornmann, 2003)

강간 위험에 대한 여성의 역 적응 (계속)

- 가임기에는 악력이 증가하는데 이는 강간 피해 시 근육이 저항하도록 설계된 예 (Petraia & Gallop, 2002)
- 가임기에는 특히 남성과의 인터뷰 내용을 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함 (Garver et al., 2007)
- 배란기에는 타 인종의 남자를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판단함 (Geyer, 2009)
- 기혼 여성이 강간에 대해 더 큰 후유증이 있어서 회피 전략이 더 다양함-낯선 장소와 남성을 피하고,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, 성적 수용성이 높은 여자임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함 (Thornhill & Palmer, 2000)